

분양열기에 날개 단 청약저축... 月 1조씩 증가

■ 주택청약종합저축 월별 잔액과 가입자수 (단위: 억원, 명)

시점	청약저축잔액	청약저축가입자수
2014.5	305.425	13,991,031
6	310.447	14,049,142
7	316.509	14,172,739
8	323.355	14,334,472
9	333.458	14,536,378
10	343.249	14,744,833
11	351.552	14,931,121
12	360.393	15,082,153
2015.1	370.070	15,270,919
2	380.880	15,480,703
3	391.602	15,779,300
4	403.191	16,050,037
5	413.806	16,231,991

(자료: 국토교통부·시중은행 집계)

공공·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하고 금리 2.5% '일거양득' 가입자 1623만명 넘어서 급증세... 인기 당분간 지속될 듯

주택경기 회복세와 저금리 기조에 힘입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1년 사이에 10조원 넘게 늘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예금·부금과 청약저축 통장의 기능을 모두 합친 것으로 조건만 갖추면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이든 모두 청약할 수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우리·신한·국민·하나·농협·기업은행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잔액은 지난해 5월 말 30조5425억원에서 올해 5월 말 41조3806억원으로 10조8381억원(35.5%) 증가했다. 특히 올 상반기 증가세가 가팔랐다. 올

해 2월에 전월대비 1조810억원 증가한 이래로 4개월 연속 매월 1조원 넘게 늘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된 2009년 5월 이후로 4개월 연속 1조원 이상 늘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월 1조원 이상 증가세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이어진 게 최장 기록이었다. 이처럼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폭증하는 것은 전세난에 시달리던 고객들이 내 집 마련에 적극 나서서 데다 금리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1% 늘어난 61만796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3월 이후 월별 주택거래량은 10만건을 넘고 있다.

저금리 상황에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재테크 자금을 끌어들이기도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은 지난달 22일 연 2.8%에서 2.5%로 하락했지만, 1%대에 머문 시중은행의 적금보다는 훨씬 높다. 국민은행 한 관계자는 "우대금리를 다 적용해도 2.5%를 넘는 적금이 은행권에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높은 금리 때문인지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문의하는 고객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전체 가입자수는 작년

5월 말 1399만131명에서 올 5월 말 1623만1991명으로 224만960명(16.0%) 늘었다.

은행권과 부동산업계는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유지되는 데다 주택경기 회복에 따른 건설사 분양물량의 증가 등으로 당분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수도권의 청약규제 1순위가 2년에서 1년으로 최근 완화돼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난데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 상품"이라며 "저금리가 유지되는 한 이 저축에 대한 인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주간 증시 포커스 그리스·중국발 공포심리 정점 지나 주도주 상승 전망

국내 주식시장은 주 초반에 그리스 국민투표, 중국 주식시장 유동성 위기 등으로 급락했다. 그러나 후반들어 그리스 문제 해결 기대감과 중국 정부의 강력한 주식시장 부양책으로 낙폭을 만회하며 한주간 3.4% 하락한 2031.17포인트로 마감했다. 하락의 주요원인은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인종 반대파 우세하면서 구제금융 협상 이슈 장기화 및 중국 주식시장 유동성 위기에 따른 주가 급락에서 찾을 수 있다.

한 주간 많이 하락한 종목으로는 대우제약이 26% 빠진 것을 비롯해 제일약품(23%), 한국콜마(20%), 아모퍼시픽(15%), 녹십자(14%), 코리아나(12%) 등 2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가격 가치 평가에 대한 부담으로 화장품,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하락세 주도 했다.

이번 주는 장중 2000포인트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매수 대기 자금의 유입과 기존 주도주 중심의 상승세가 전망돼 투자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에서 시리자 총리는 국민투표로 재신임 받았지만, 국가 현금 부족의 현실은 더욱 악화 중이며 그리스는 채권단에 수정 개혁안을 제시하고 부채에 대한 헤어질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독일 메르켈 총리는 좌파 정권에 대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강경 대응책을 유지하러 하겠지만 EU 외해에 대한 책임론도 자유롭지 않음에 따라 중재에 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중국증시는 단기 급락은 진정되었으나, GDP 성장을 발표 이후 중국 정부 대응이 향후 증시의 관건이 될 것이다. 중국 주식시장은 지난 9일, 10일 상승 마감해 단기 급락에 따른 반등중에 있으며 중국 정부의 IPO 물량 조절,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 등으로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어나 오는 15일 발표될 예정인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올 경우, 중국 주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가능이 높으므로 중국 정부의 통화 및 재정 정책 발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국내주식 시장은 공포심리가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저가매수 성격의 기관의 주식 매수 대기 자금의 유입에 대한 기대감, 반등시 최근 낙폭이 컸던 기존 주도주 중심의 상승이 예상된만큼 한 걸 여유로운 투자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윤자중
(NH투자증권 광주WMC센터장)

노후 필요한 월 최소 생활비 부부 160만원·개인 99만원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

2013년 현재 50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이 노후에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월 생활비는 부부기준으로 약 160만원, 개인기준으로 약 99만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노후에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월 적정 생활비는 부부기준으로 225만원, 개인기준으로 142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 송현주·이은영·임란·김호진 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중·고령자 경제생활 및 노후 준비 실태' 연구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국민연금연구원이나 중·고령층의 노후 준비와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자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전국 5110가구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6년으로 시행하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2013년도 제5차 조사결과를 분석했다. 5차년도 조사결과,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노후시작 연령은 평균 67.9세였다.

노후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으로 응답자의 56.8%가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를 꼽았다. 노후에 필요한 월 생활비 수준을 조사해보니, 필요 최소 노후생활비는 부부기준 159만9100원, 개인기준 98만8700원으로 나타났다. 필요 적정 노후생활비는 부부기준 224만9600원, 개인기준 142만1900원으로 파악됐다.

조사시점 현재 전체 응답자의 50.7%는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경제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노후대책 마련에서 가장 주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주체로는 전반적으로 '본인'(63.9%)을 꼽는 응답이 많았다. 이어 배우자, 정부 등의 순이었다.

노후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은 응답자 스스로 노후시기에 진입했다고 여기느냐, 여기서 않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미 노후에 들어섰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자식과 친척한테 받는 생활비와 용돈'을 생활비 마련수단으로 가장 선호했다.

노후시기에 아직 진입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80.4%가 노후를 대비해 경제적으로 준비하는 게 없다고 응답했다. 실제 노후에 들어서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19.6%만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들은 노후준비 방법(다중주택(과)으로 1순위 국민연금(50.4%)을, 2순위 예금·적금·저축성 보험(45.0%)을, 3순위 부동산 운용(25.0%)을 각각 들었다. 자신이 노후시기에 해당한다고 인식하느냐, 않느냐에 관계없이 노후대책에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경제적 문제'였고,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은 '건강·의료'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 감소했지만 담배 세수는 1조 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 판매 진열대. <광주일보 자료사진>

담뱃값 인상 6개월 세수 1조2000억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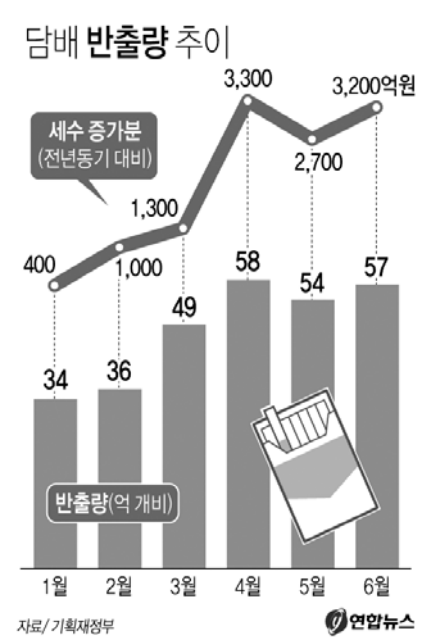
금연자들 줄줄이 'U턴' 담배 판매량 다시 급증

담배에 붙는 세금이 인상돼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른 지 6개월여가 지났다. 담뱃세 인상에 따라 올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 감소했지만 담배 세수는 1조2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은 4조370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3조1600억원)보다 1조21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한 세수 증가 폭은 올해 1월 400억원에 그쳤으나 2월 1000억원, 3월 1300억원

으로 확대됐다. 4월에는 3300억원으로 훌쩍 뛰 이후 5월 2700억원, 6월 3200억원으로 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초 금연을 결심했던 흡연자들이 다시 담배를 피우 물면서 판매량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담배 세수 계산의 기반이 되는 '담배반출량'은 담뱃값 인상 직후인 올해 1월 34억개, 2월 36억개, 3월 49억개, 4월 58억개, 5월 54억개, 6월에는 57억개로 올라갔다. 반출량은 공장이나 창고에서 담배가 얼마나 나갔는지 나타낸 것으로, 담배 제조업체가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내려고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는 수량이다. 장기적으로는 실제 소비량이 반출량



담배 반출량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투데이 경매

농성공원역 주유소부지, 큰대로변 차량통행많은, 커피전문점, 식당, 차량관련사업체추천
지하 1층~지상 4층
대지 814㎡ 건물 903㎡
감정가 15억 8천
최저가 11억

주월동 아파트단지내 최고상권 편의점, 카페, 학원등 입점추천
지하1층~지상4층
대지 236㎡ 건물 594.8㎡
감정가 4억 5천 3백
최저가 4억 5천 3백

담양군 대덕면 광주~20분거리에 위치한 물류센터건물
대형차 진출입여건 좋음
대지 18234㎡ 건물 3672㎡
감정가 14억9천
최저가 6억4천

운암동 아파트단지 우수상권 편의점, PC방, 카페 추천
지하1층~지상3층
대지 532㎡ 건물 796㎡
감정가 8억 5천
최저가 5억 9천

투데이옥션 이현석부장
010-9963-6345

단비플라워

죽아화원3단, 근조화원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백성) 302-0316-649511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대산프리모가발